

# 신장이식환자에서 발생한 거대세포바이러스 (Cytomegalovirus, CMV) 감염에 의한 급성 지방층염 (Acute Panniculitis) 1예

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이현철 · 김찬덕 · 최지영 · 박자용 · 최혁준 · 장민화 · 김준철 · 박선희 · 김용림

**서 론 :**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부병변은 드물게 발생하며 임상양상은 주로 반점, 구진, 두드러기, 자반 혹은 궤양이나 결절의 형태로 나타난다. 2002년 Ruiz Lascano A 등이 그 전에 보고된 적이 없는 붕화직염의 형태로 나타난 거대세포바이러스에 의한 피부병변 1예를 보고한 적은 있으나, 전세계적으로 거대세포바이러스에 의한 급성지방층염은 아직까지 보고된 예가 없다. 일반적인 지방층염의 원인으로는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Weber-Christian병, 여러 류마치스 질환, 림프종과 같은 종양 그리고 감염 등을 들 수 있는데, 이 중 감염의 원인균으로 거대세포바이러스가 보고된 경우도 없었다. 이에 저자들은 신장이식환자에 있어 거대세포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지방층염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**증 례 :** 47세의 여자환자 (몸무게 62 kg, 키 155 cm)로 20년 전 신장이식수술 시행 후 Azathioprine (100 mg)과 Prednisolone (10 mg)으로 면역억제를 시행하고 있었고, 혈청 크레아티닌 2.5-3.5 mg/dL 정도를 유지하며 지내던 중, 2003년 11월 2주간의 좌측 골반 부위의 통증 및 발열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이학적 검사상 좌측골반부위의 피부에 발적을 보이는 종괴성 병변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압통을 동반하였다. 종괴의 성상과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서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였으나 병변부위의 피하지방층에 심한 부종을 보이는 소견 외에는 복강 내나 고관절 등에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. 피부병변에 대해 절개 및 배액술, 그리고 조직생검 및 균 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. 배액된 분비물의 세균학적, 진균학적 그리고 결핵균 배양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배양되는 균은 없었고, 혈청학적 검사에서 CMV early Antigen 양성 (31개/20만 백혈구) 소견을 보였다. 조직생검 및 배액된 분비물에서 시행한 CMV PCR (Polymerase chain reaction)상에서 CMV DNA 양성소견을 보였고, 조직생검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되는 세포가 보이는 급성 지방층염 소견을 보여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지방층염으로 진단 후 ganciclovir 투여를 시작하였다. 약 한 달간의 ganciclovir 투여 후 피부병변은 완전히 호전되었고, 추적 혈청학적 검사상 CMV early Antigen 음성으로 나타나서 ganciclovir 투여를 중단하였다. 환자는 퇴원하여 현재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으로 이전에 보이던 피부병변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재발은 없었다.